

[제너럴 일렉트릭] CPP 120 억달러 인수 - 캐스팅 공급망 내재화, 반독점 리스크 동반



26.09.09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핵심 요약

- CPP 120 억달러 인수, 엔진 캐스팅 공급망 내재화
- Avio Aero 보유로 반독점 사업부 매각 가능성 거론
- 밸류에이션 상단서 M&A 실행·규제 리스크 부각

GE Aerospace 가 정밀주조(캐스팅) 부품 세계 3 위 업체 CPP(Consolidated Precision Products)를 120 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 제프리스 추정에 따르면 CPP 는 GE 엔진 수요의 약 25%를 담당하는 핵심 협력사로, 이번 거래는 독립법인 체제 전환 이후 GE Aerospace 가 단행한 최대 규모 인수다. 터빈 블레이드용 정밀주조 부속이 팬데믹 이후 항공엔진 산업의 고질적 병목으로 지목돼온 만큼, 이를 직접 내재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캐스팅은 밀랍 원형으로 형태를 뜬 뒤 녹는점 이상 온도를 견디도록 정밀 성형하는 공정으로, 소수 업체가 수십년간 쌓은 노하우를 독점해 대체가 어렵고 가격 협상력도 크다. GE 는 그동안 Howmet 과 Precision Castparts 두 대형 공급사에 의존해왔는데, 이번 인수로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는 동시에 차세대 엔진 설계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그동안 지적해온 install 엔진 성장에 따른 마진 희석 구조와 맞물려 보면, 공급망 내재화는 중장기적으로 부품 조달 병목을 완화해 LEAP·GE9X 납품 확대를 뒷받침할 잠재 요인이거나, 단기적으로는 통합 비용과 심사 부담이 먼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기사는 GE 가 이탈리아 기어 제조사 Avio Aero 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이번 거래가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일부 사업부 매각을 요구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CPP 를 함께 이용해온 경쟁 엔진업체나 경쟁 공급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 종결 시점이나 CPP 인수가 FY26 가이던스·FCF 전망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은 이번 보도에 담기지 않았다.

210 억달러가 아닌 210 억달러 이상 수주잔고(원문 기준 \$210B+)로 매출 가시성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12 개월 선행 PE 44.2 배로 역사적 상단에 거래되는 상황에서 대형 M&A 실행이 자본배분과 반독점 심사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다음 실적 발표 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가에는 공급망 안정성 확보라는 긍정 신호와 M&A 실행·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해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재무 요약 (I/B/E/S 컨센서스)

항목	FY Dec-24	FY Dec-25	FY Dec-26 (E)	FY Dec-27 (E)	FY Dec-28 (E)
매출 (Revenue)	35.12	42.32	50.33	55.93	61.05
↘ 증가율	-48.32%	20.50%	18.93%	11.12%	9.15%
매출총이익	10.81	16.05	1.30	2.61	3.98
↘ 마진	30.79%	37.92%	2.59%	4.66%	6.52%
EBITDA	8.44	10.28	12.00	13.60	15.24
↘ 마진	24.02%	24.28%	23.85%	24.31%	24.96%
영업이익 (EBIT)	7.25	9.05	10.82	12.24	13.69
↘ 마진	20.65%	21.40%	21.50%	21.89%	22.42%
순이익	5.04	6.81	8.31	9.46	10.46
↘ 마진	14.34%	16.10%	16.50%	16.92%	17.14%
EPS	4.60	6.37	7.90	9.11	10.38
↘ 증가율	63.70%	38.48%	24.09%	15.21%	14.01%
잉여현금흐름 (FCF)	4.79	7.27	9.04	9.92	9.86
P/E	27.5x	37.7x	42.4x	36.8x	32.3x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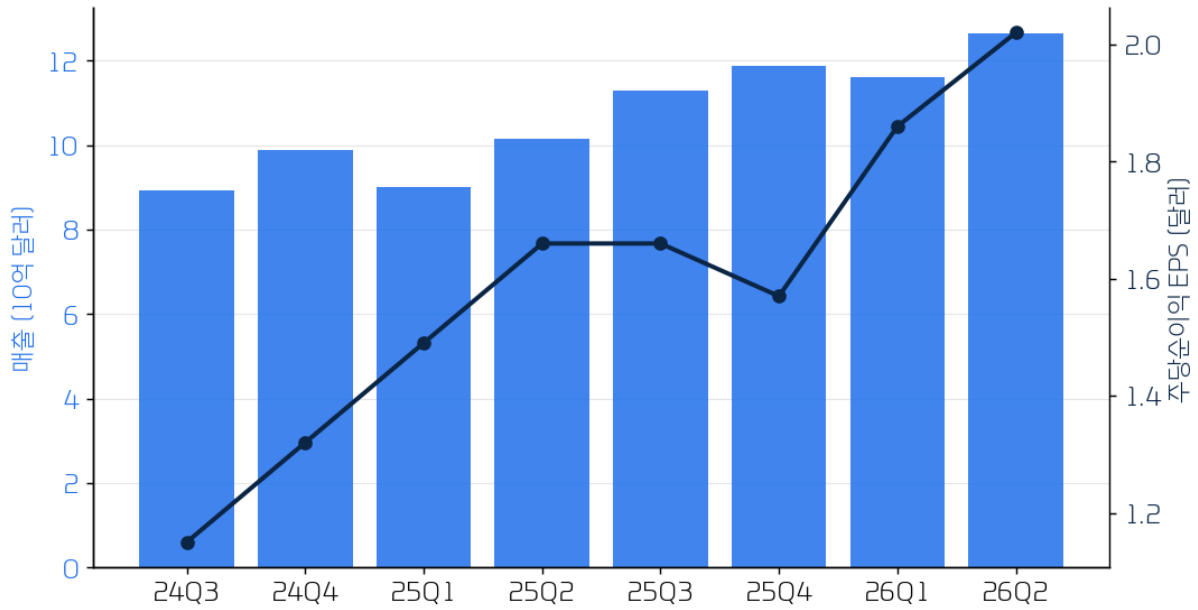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YoY, 단위는 십억 USD

참고 차트

GE 주가·12개월 선행 EP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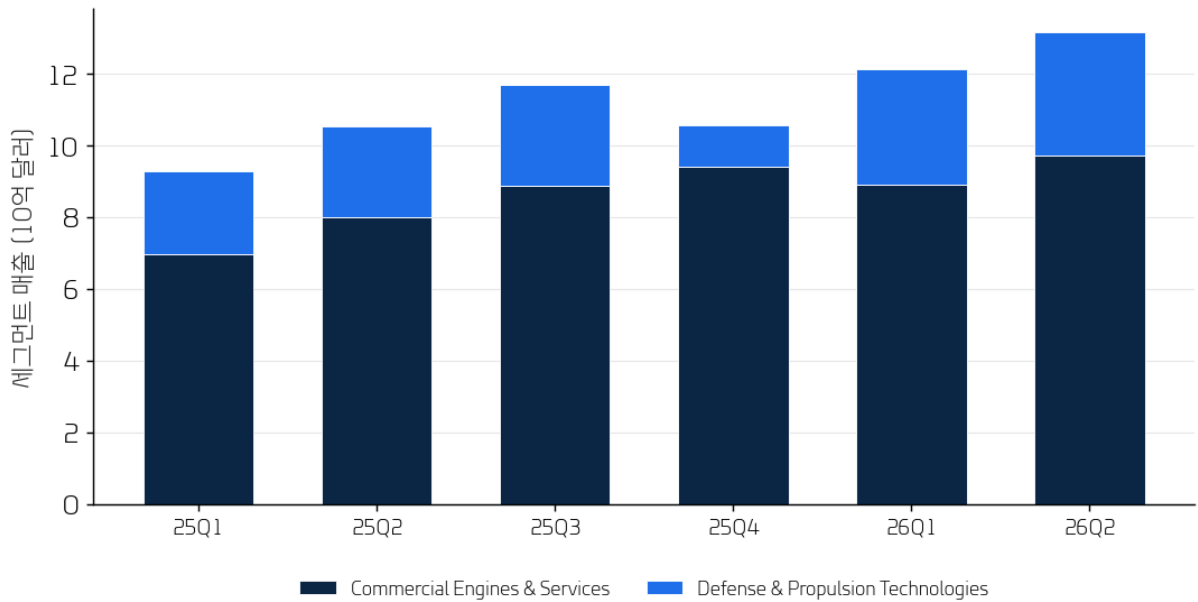


GE 분기 매출·주당순이익(EPS) 과거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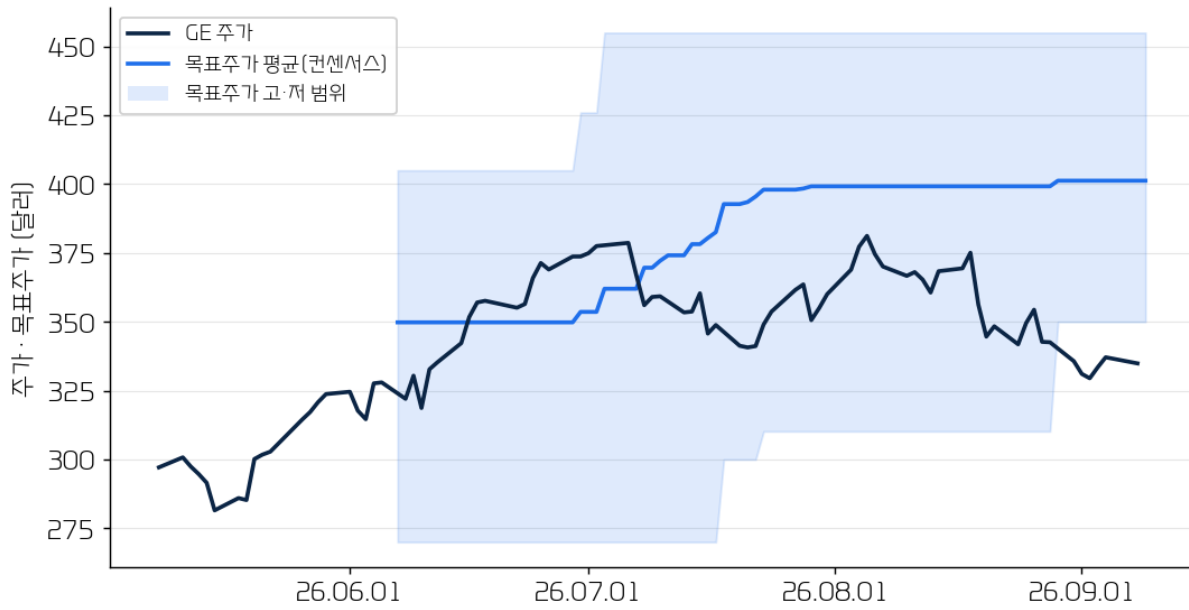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GE 세그먼트 매출 구성(사업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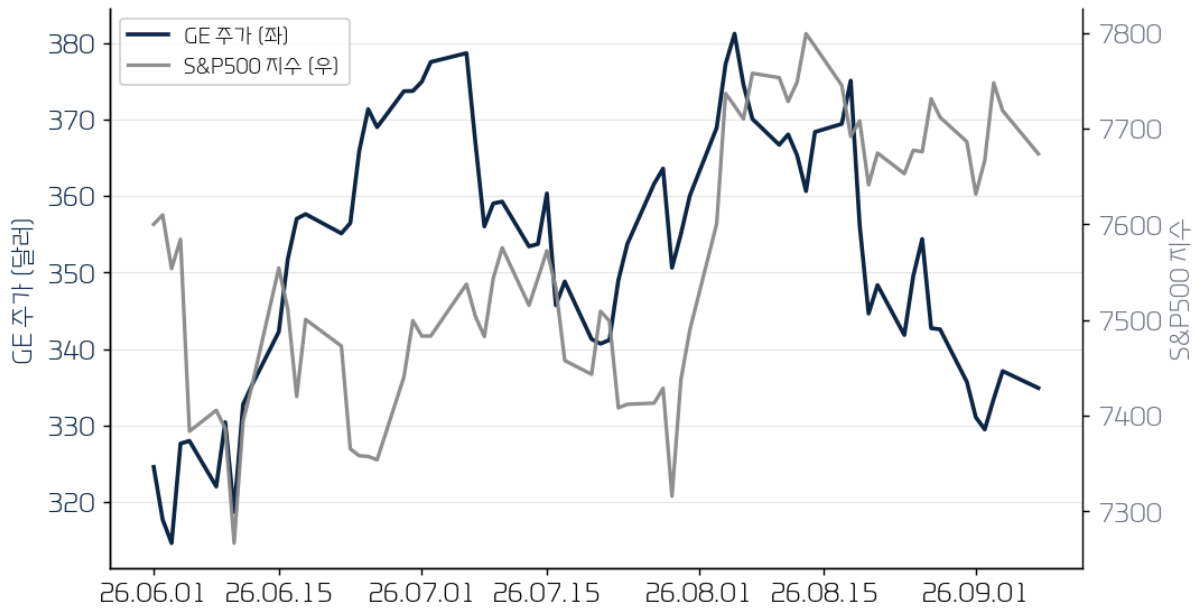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GE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추이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GE 주가 vs S&P500 (최근 90 일)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